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 군집유형에 따른 부모 양육 관련 변인 차이 연구 : 정서 문제 고위험, 저위험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임영은** · 임동선*** (이화여자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 관련 변인(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 특성을 조합할 때 어떤 자연발생적인 군집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 집단이 부모 양육 관련 변인(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모방임,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2기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 1,842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을 이용해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를 분석한 결과, 2개 집단으로 분류되어 ‘정서 문제 고위험 집단’과 ‘정서 문제 저위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정서 문제 고위험 집단’과 ‘정서 문제 저위험 집단’ 간 부모 양육 관련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정서 문제 저위험 집단’이 ‘정서 문제 고위험 집단’ 보다 부모지지와 부모감독,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으며, 부모방임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 문제에 부모 양육 관련 변인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감독,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 부모방임, 부모지지 순으로 정서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 정서 문제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청소년, 정서 문제, 부모 양육 태도,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

I. 서론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며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를 의미한다. 202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 수는 19만 명을 넘어 전체 초중고 학생의 3.8%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4). 이는 한국 사회가 더는 단일민족 사회가 아니며,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학계에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됐다. 국내 다문화 연구 및 다문화 상담 연구의 현황을 밝힌 임은미 등(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1096102)

** 제1저자, 박사후과정연구원, ye.lim@ewha.ac.kr

*** 교신저자, 교수, sunyim@ewha.ac.kr

진행된 다문화 연구 및 상담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 폭이 커졌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을 분석한 이승록 등(2025)의 연구를 보면, 다문화 상담 연구는 초기 개념 정립 단계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고, 교육과 가족, 상담, 결과, 사회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와 접근법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정서 문제는 성인기 정신병리 발달의 위험을 높이며(유하나, 2024), 폭력이나 비행 등과 같은 행동문제로도 연결되기 때문에(박혜숙, 김양곤, 2014), 다문화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많이 강조됐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 정서 문제 관련 연구들이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의견이 눈에 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다문화 청소년은 배경에 따라 다양한 발달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를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 본 연구들은 다문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낮은 자존감과(김아영, 김수인, 2011) 위축,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배경희, 이수천, 2014), 자살 시도(김정민 외, 2015) 등을 나타냄을 보고한다. 그밖에도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를 괴롭힘 피해 경험(오인수, 2014)이나 차별 경험(정현 외, 2017)과 같은 문제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비록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여겨지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도움이 필요한 집단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서적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따라 정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을 정서 문제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이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되짚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한 것(오승환, 2016; 이원령, 2013)은 다수이지만 부모 양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따뜻한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정신질환을 낮추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Kallay & Cheie,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한 부모 개입에 초점을 둔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와 관련된 부모 양육 변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에 따른 집단 분류를 통해 부모 양육 관련 변인의 차이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개입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모 양육 변인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면, 부모 차원에서 학생의 정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는 크게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 공격성, 비행, 주의집중 감소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Whaley & Francis, 2006). 내면화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자아, 학업성취, 친구 관계 등 여러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경우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문대근, 문수백, 2011). 또한, 외현화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Loeber & Farrington, 1998)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영향은 가속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이봉주, 민원홍, 2015). 특히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은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잘 나타내는 지표이며, 효과적인 개입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서 문제라는 범주로 묶어 살펴본다.

먼저, 우울은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 중 가장 대표할 만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 속에서의 혼란, 소수자라는 약자의 위치, 의사소통 문제 등이 가중되어 우울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Kirmayer, 2012). 실제로 많은 연구가 다문화 청소년의 높은 우울 정서를 보고한다(박현주, 양영자, 2020; 채명옥, 2018).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은 성인기 우울보다 지속 기간이 길고, 재발률이 높으며, 치명적인 자살의 유의한 원인변수가 된다는 점에서(박근형 외, 2013) 이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위축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로 많이 다루어지는 변인이다(김수민, 2024; 김은혜, 정민아, 2024; 김철희, 2022). 사회적 위축이란 개인이 다양한 이유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소극적, 회피적 태도를 나타내는 특성을 의미한다(Rubin et al., 2009).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또래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기보다는 주변을 맴돌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Oh et al., 2008),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결국 건강한 적응과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Rubin et al., 2009).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차별 경험 등이 사회적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인식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동욱 등(202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별인식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5부터 중3까지의 5년 동안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을 살펴본 정주미와 이동형(2021)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은 다문화 청소년의 대표적인 외현화 문제로 앞서 본 우울, 사회적 위축과도 깊은 관계를 갖는다(Im et al., 2018).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발달적 특징에 있어 적절한 대처전략이 미숙하므로 공격성은 더욱 쉽게 폭력과 같은 비행,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격성과 비행, 반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이미 많은 연구가 검증하였다(우희정, 2013; Forster et

al., 2015). 특히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비행과 맞닿아져 연구되었는데(조강현, 2021), 그들의 공격성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사회적 차별, 수치심, 그리고 주변인으로서 느끼는 소외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었다(Smokowski et al., 2009).

2. 부모 양육 태도가 정서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으로 정의되는 부모 양육 태도는(허묘연, 2004) 청소년의 정서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고미숙, 2015; 이정미, 양명숙, 2006; Wolfradt et al., 2003). 청소년의 정서 문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응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김선희, 김정연, 1998),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차적 환경으로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별히 청소년기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또래 관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기에도 부모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되는 요인으로(김은정, 2009; 차한솔 외, 2019)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 청소년의 정서 문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 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으로 제시되고 있다(허묘연, 2000). 그중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정적 차원으로서의 방임과 긍정적 차원으로서의 감독 및 부모지지가 많이 연구되어왔다(우안순, 백진아, 2021; 유승현, 조성희, 2022; 정두수, 백진아, 2020). 본 연구도 이를 반영하여 부모 양육 관련 변인으로서의 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모방임이 정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부모 양육 변인의 다양성을 위해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내는 부모와의 대화 및 활동빈도를 추가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부모 양육 태도 중 방임은 최소한의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의 무관심이나 방치, 태만, 거부를 뜻하는 것으로(유승현, 조성희, 2022),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현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품행장애, 비행, 공격성 같은 외현적 문제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으로 보고된다(박기원, 2014; 이복실, 2007; Kaplan et al., 1998). 구체적으로 백성은(2023)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방임적일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석 등(202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모의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양육 태도를 의미하는 부모지지는 정서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제시된다. 다문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애정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하고(Thomas & Sumathi, 2016),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류도희, 2022). 특히 급격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기는 가족의 지지가 심리적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류도희, 2022), 이중문화

배경을 가지는 다문화 청소년은 일차적인 가족 환경의 영향을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인효연, 2017) 부모지지가 더욱 강조된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이나 외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양육 방식을 뜻하는 부모 감독(임혜림 외, 2014) 또한 정서 문제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는 변인으로 설명된다(박진경, 도현심, 2001; 유승현, 조성희, 2022). Kerr과 Stattin(2000)은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자녀의 내적 성장과 안정감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병삼(2010)은 부모 감독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주관적 행복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정보 공유를 통해 긍정적 상호관계를 이끄는 것으로 이해되며,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송원일, 2021; 양영미 외, 2022).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대화 및 활동빈도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로 청소년의 정서 문제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는 요소로 제시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및 대화시간은 삶의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배희분 외, 2013; Piko & Hamvai, 2010), 우울감과 자살 생각 같은 문제행동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Sen, 2010).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은모, 최효식, 2022). 이는 부모와의 대화 및 활동빈도가 단순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결속력과 응집력을 증진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생활이나 어려움을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되고,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개인의 삶의 만족과도 연결될 수 있다(김경미 외, 2012).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2기 데이터(MAPS 2기)」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패널은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해 매년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5차년도(2023년)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을 5차년도 패널로 선택한 이유는 이 데이터가 가장 최근에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조사 기간 2023.6 ~ 2023.10), 다문화 청소년들이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정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아시아경제, 2023.12.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다문화 청소년 총 1,842명(남 949명, 여 89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측정도구

1) 정서 문제

정서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의 일부 문항을 발췌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정서 문제에 대한 척도는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의 3가지 하위요인들이다. 우울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모든 일이 힘들다’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위축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3문항이다. 공격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likert 4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점, ‘그런 편이다’가 3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이다. 본 연구에서 정서 문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84, 우울은 .886, 사회적 위축은 .834, 공격성은 .777로 나타났다.

2) 부모지지

부모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에서 Hernandez(1993)의 학업관련 사회적지지 문항을 수정 보완한 김순규(2001)의 부모의 교육적 지원 및 기대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6개로 ‘부모님(보호자)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준다’, ‘부모님(보호자)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준다’, ‘부모님(보호자)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준다’,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물건, 장소 등을 잘 제공해주신다’이다. Likert 4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점, ‘그런 편이다’가 3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지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74로 나타났다.

3) 부모감독

부모감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에서 허묘연(2000)의 부모양육태도 감독 4문항 중 3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이며,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점, ‘그런 편이다’가 3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감독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23으로 나타났다.

4) 부모방임

부모방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에서 부모양육태도 중 방치 5문항 및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하여 이경상 외(2011)가 작성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총 7개로 ‘부모님(보호자)은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부모님(보호자)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칭찬을 하거나 혼내시는 일이 없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쓰신다’로 구성되었다. Likert 4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점, ‘그런 편이다’가 3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방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576으로 나타났다.

5)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

부모와의 대화 및 활동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에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를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문항은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빈도를 묻는 총 4문항으로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여가활동(스포츠, 취미, 오락 등 여유 시간에 하는 활동)’, ‘저녁식사’를 Likert 4점 척도로 ‘거의 하지 않는다’가 1점, ‘월 1~3회’가 2점, ‘주 1~3회’가 3점, ‘주 4~6회’가 4점, ‘매일한다’가 5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55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먼저, 연구에 포함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서 문제 관련 변인(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의 특성을 조합할 때 어떤 군집이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집단이 부모 양육 관련 변인들(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모방임,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서 문제 총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부모 양육 관련 변인들을 예언 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분된 집단의 구분기준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정서 문제(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와 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모방임,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1. 정서 문제	1							
1-1. 우울	.879**	1						
1-2. 사회적 위축	.798**	.538**	1					
1-3. 공격성	.732**	.497**	.384**	1				
2. 부모지지	-.331**	-.363**	-.208**	-.201**	1			
3. 부모감독	-.324**	-.341**	-.190**	-.235**	.540**	1		
4. 부모방임	.223**	.277**	.077**	.166**	-.211**	-.083**	1	
5. 부모 대화 및 활동 빈도	-.312**	-.318**	-.229**	-.186**	.423**	.338**	-.113**	1

** $p < .01$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는 부모지지($r = -.331$, $p < 0.01$), 부모감독($r = -.324$, $p < 0.01$),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r = -.312$, $p < 0.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방임($r = .223$, $p < 0.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정서 문제 관련 변인 간의 군집유형

정서 문제 관련 변인인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을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평균값을 토대로 집단을 강제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데이터 자체의 특성을 기반으로 집단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분석은 먼저 군집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덴드로그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2개 군집으로 나누는 것이 집단의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 줄 것으로 판단되어, 군집수를 2개로 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정서 문제 관련 변인 간의 군집유형

변수	군집1 (n=879)	군집2 (n=940)
우울	-0.75	0.62
사회적 위축	-0.69	0.61
공격성	-0.68	0.61

그 결과, 군집1은 879명, 군집2는 940명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중심을 확인한 결과, 군집1은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 모두 낮게 나타났고, 군집2는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중심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1은 ‘정서 문제 저위험 집단’, 군집2는 ‘정서 문제 고위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 정서 문제 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 관련 변인들의 차이

정서 문제 고위험 집단과 정서 문제 저위험 집단 간에 부모 양육 관련 변인들(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모방임,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정서 문제 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 관련 변인 차이 검증

변인	정서 문제 저위험 집단 M(SD)	정서 문제 고위험 집단 M(SD)	t
부모지지	3.39(0.47)	3.11(0.46)	13.00***
부모감독	3.36(0.55)	3.05(0.53)	12.34***
부모방임	2.04(0.37)	2.17(0.37)	-7.59***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	3.06(0.88)	2.59(0.86)	11.44***

*** $p < .001$

정서 문제 저위험 집단과 정서 문제 고위험 집단은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지지($t=13.00$, $p<.001$), 부모감독($t=12.34$, $p<.001$),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t=11.44$, $p<.001$)는 정서 문제 저위험 집단이 정서 문제 고위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방임($t=-7.59$, $p<.001$)은 정서 문제 저위험 집단이 정서 문제 고위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서 문제 수준에 따른 부모 양육 관련 변인들의 차이

정서 문제에 부모 양육 관련 변인들(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모방임,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정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B	S.E.	β	t	p	F
부모지지	-0.129	0.028	-0.121	-4.538	0.000	109.203***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	-0.104	0.014	-0.180	-7.696	0.000	
부모방임	0.224	0.030	0.162	7.553	0.000	
부모감독	-0.170	0.023	-0.184	-7.316	0.000	
$R^2(\text{adj. } R^2) = .192(.190)$						

*** $p < .001$

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모방임,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가 포함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F=109.203$,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9.2%(수정된 R제곱은 19.0%)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8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부모지지($\beta=-0.121$, $p < .001$),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beta=-0.180$, $p < .001$), 부모감독($\beta=-0.184$, $p < .001$)은 정서 문제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지지가 높고, 부모와 활동하는 빈도가 높으며, 부모 감독이 많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는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부모방임($\beta=0.162$, $p < .001$)은 정서 문제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방임할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부모감독($\beta=-0.184$),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beta=-0.180$), 부모방임($\beta=0.162$), 부모지지($\beta=-0.121$) 순으로 정서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5. 판별분석

군집분석을 통해 구분된 집단의 구분기준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시행했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개의 판별함수(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모방임,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Lambda 값=.863, $p < .001$) 사례의 66.7%를 정확하게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정서 문제 고위험-저위험 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인

변인	Lambda	판별함수와의 상관계수	사례의 정확 분류비율
부모지지	.915***	.767	66.7%
부모감독	.922***	.728	
부모방임	.969***	-.447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	.933***	.674	
Eigen 값		.158	
Lambda 값		.863***	

*** $p < .001$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고, 부모 양육 관련 변인(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모방임,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학생의 정서 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 관련 변인(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간의 군집 분석 결과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 모두 높은 ‘정서 문제 고위험 집단’과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 모두 낮은 ‘정서 문제 저위험 집단’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문제에 취약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별하는 요인을 분석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단순히 정서 문제 관련 변인의 총점으로 상·하 집단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집 분석을 활용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을 다양한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른 군집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른 선행연구(김아영 외, 2024; 박송주, 이보라, 2021)와도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단일한 정서적 취약성 집단으로만 보는 기존의 시각을 지양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설계할 때에는 이들을 일반 청소년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원하기보다는 통합적인 환경에서 개별 정서적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문화 청소년이 또래 집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정서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일반 청소년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서 문제 저위험 집단과 정서 문제 고위험 집단 간 부모 양육 관련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부모 양육 관련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문제 고위험 집단은 정서 문제 저위험 집단보다 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모대화 및 활동빈도가 낮고, 부모방임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서 문제가 없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지만, 정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부모의 관심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정서 문제는 부모의 양육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선행연구들(Baumrind, 1991; Maccoby & Martin, 1983)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자녀와의 소통을 늘리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서 문제에 부모 양육 관련 변인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감독,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 부모방임, 부모지지 순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감독,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 부모지지는 정서 문제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지만, 부모방임은 정서 문제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t-검정 결과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에 부모 양육 방식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부모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개인이나 학교 변인보다 가정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모 양육 관련 변인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인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방안을 덧붙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 양육 관련 변인 중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부모 감독과 관련하여 부모들의 인식 변화와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부모 감독 내용은 자녀가 방과 후나 외출할 때 어디에 가고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평소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나 의사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부모의 간섭과 통제에 반항하는 시기로 알려져 많은 부모는 특히 이 시기의 부모 감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려워한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 부모들을 위한 많은 교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 부모지지를 가장 강조해 오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지지보다 오히려 부모 감독이 청소년의 정서 문제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본 연구결과는 단순한 정서 지지보다 구체적인 감독과 개입이 청소년의 정서 문제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자녀의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예: 규칙 설정, 시간 관리, 생활 관리, 학업 지도 등)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제 예방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적응 문제로 인해 가정 내에서의 구조적인 지도가 더욱 필요할 수 있다. 이는 비록 다문화 청소년은 아니지만, 부모 감독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정서 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은경, 한세영, 2016; 정소희, 2016)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서,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청소년의 정서 문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보편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과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부모 감독의 개념을 다시 알려주고(예: 사생활 침해, 과도한 통제), 올바른 부모 감독방법 및 경계선 안내(예: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

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합리적인 규칙 설정), 부모 자녀 간의 효과적인 대화 방법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 역시 정서 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부모-자녀 의사소통 기술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정서 문제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방임은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자녀 방임에는 부모의 우울함이나 양육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친다(Stith et al., 2009). 따라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종래의 다문화 청소년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익히게 하는데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은 그들이 새로운 문화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완화할 수 있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 덧붙여 부모방임은 아동학대와 더불어 빈곤과 소외 등 사회구조적 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필수적인 문제이다(류정희, 2016).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 부모 상담 시에는 이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사업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등을 정리해 안내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 문제 집단을 나누기 위해 전통적인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 수의 결정이 통계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되기도 한다(Bergman & Magnusson, 1997).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집단구분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모방임, 부모 대화 및 활동빈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를 약 19.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 방식이 이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2기 데이터를 활용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미숙 (2015).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또래애착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4(6), 783-793.
- 교육부 (2024). 2024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세종: 교육부.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2). 가족간 식사, 통화 및 여가활동과 중년기의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2), 279-300.
- 김동욱, 장근호, 조민호 (2023).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차별인식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3(3), 1-37.
- 김선희, 김정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 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수민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방임과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3(2), 85-118.
- 김순규 (2001).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아영, 김수인 (2011). 여성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교육심리연구*, 25(4), 853-873.
- 김아영, 김지연, 김차령, 이륜하, 장예림, 정유라, 김영현, 김예림, 임동선 (2024). 부모-아동 상호작용 시 사용언어에 따른 아동의 의사소통 행동 비교: 놀이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연구* 26(3), 32-62.
- 김은정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또래관계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2), 85-129.
- 김은혜, 정민아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 이중문화수용태도, 사회적 위축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복지연구*, 26(1), 51-75.
- 김정민, 공보금, 강제욱, 문정준, 전동욱, 강은찬, 주현빈, 이윤호, 정도운 (2015).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정신 건강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6(4), 279-287.
- 김철희 (202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5), 231-249.
- 류도희 (2022).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9(3), 271-298.
- 류정희 (2016). 방임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6, 263-290.
- 문대근, 문수백 (2011). 아동의 내면화-외현화문제행동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32(5), 49-65.
- 박근형, 최유리, 김보라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2012 청소년건강형태 온라인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1), 155-165.
-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지*, 35(1), 1-15.

- 박송주, 이보라 (2021).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른 군집과 고교진학 유형 차이 분석. 한국 청소년연구, 32(3), 209-234.
- 박진경, 도현심 (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박현주, 양영자 (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418-428.
- 박혜숙, 김양곤 (2014). 한국 청소년의 정서, 가정, 또래 및 학교환경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19-143.
- 배경희, 이수천 (2014). 개인·친구·부모·학교요인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7, 219-246.
- 배희분, 옥선화, 양경선 (2013). 가족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0(4), 125-149.
- 백성은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방임적 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4(3), 3859-3873.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송원일 (202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적 역할.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6(3), 33-55.
- 아시아경제 (2023.12.10.). ‘극단적 선택’ 생각하는 청소년, 중2가 가장 많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21015091675871>
- 양영미, 조성심, 이선영 (2022).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감독 및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관계: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1), 45-63.
- 연은모, 최효식 (2022). 부모의 양육스타일,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교생의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4), 313-328.
- 오승환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1-27.
- 오인수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1), 147-171.
- 우안순, 백진아 (202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 379-388.
- 우희정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2), 195-206.
- 유승현, 조성희 (2022).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6(1), 203-223.
- 유하나. (2024). 청소년기 전반적 사회정서 발달과 발달적 위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3(4), 323-345.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김현주, 한영근 (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복실 (2007). 중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공격성, 학교폭력경험 및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13, 25-50.
- 이봉주, 민원홍 (2015). 아동·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학연구

- 구, 22(8), 335-361.
- 이승록, 조수현, 박정환, 조정원 (2025).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분석. *지능정보융합과 미래교육*, 4(1), 1-29.
- 이원령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 관련변인에 대한 문헌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9(3), 409-431.
- 이은경, 한세영. (2016). 부모의 애정과 감독 및 비밀관적 양육행동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3), 153-172.
- 이정미, 양명숙 (2006).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 가정 및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7(3), 865-883.
- 이진석, 장대연, 최선아 (2020). Effects of Neglectful Parenting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Du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6, 127-157.
- 인효연 (2017).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지각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0), 459-482.
- 임은미, 정선진, 김은주 (2009). 국내 다문화 연구와 다문화 상담 연구의 현황. *상담학연구*, 10(3), 1291-1304.
-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부모양육태도, 부모애착, 부모감독, 학교생활적응, 학업 스트레스, 우울, 공격성. *청소년복지연구*, 16(4), 1-27.
- 정두수, 백진아. (2020).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이중문화수용태도, 집단따돌림 및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10(10), 161-173.
- 정병삼 (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정소희 (2016).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초, 중, 고 발달단계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6), 119-144.
- 정주미, 이동형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1), 57-85.
- 정현, 박서연, 전희정 (2017).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구조적·문화적·환경적 관점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5(4), 307-336.
- 조강현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차한솔, 김주일, 이호수 (2019).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4), 41-55.
- 채명옥 (2018).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성향. *디지털융합연구*, 16(12), 383-393.
- 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 구본호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IX: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데이터: 제1-5차 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ergman L. R.,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 Forster, M., Grigsby, T., Soto, D. W., Schwartz, S. J., Unger, J. B. (2015). The role of bicultural stress and perceived context of reception in the expression of aggression and rule breaking behaviors among recent-immigrant Hispanic yout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0(11), 1807-1827.
- Im, S., Jin, G., Jeong, J., Yeom, J., Jekal, J., Cho, J. A., ... & Lee, C. H. (2018).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related responses on EEG and ECG. *Experimental Neurobiology*, 27(6), 526-538.
- Kallay, E., & Cheie, L. (2023). "Can I still blame my parents?" Link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Current Psychology*, 42(31), 27259-27274.
- Kaplan, S. J., Pelcovitz, D., Salzinger, S., Weiner, M., Mandel, F. S., Lesser, M. L., & Labruna, V. E. (1998). Adolescent physical abuse: Risk for adolescent psychiatric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7), 954-959.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 Kirmayer, L. J. (2012). Rethinking cultural competence. *Transcultural Psychiatry*, 49(2), 149-164.
- Loeber, R., & Farrington, D. P. (1998).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 Sage.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ew York: Wiley.
- Oh, W., Rubin, K. H. Bowker, J. C., Booth-LaForce, C., Rose-Krasnor, L., & Laursen B. (2008).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4), 553-566.
- Piko, B. & Hamvai, C. (2010). Parent, school and peer-related correlate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 1479-1482.
- Rubin, K. H., Coplan, R. J.,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Sen, B.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of family dinner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fter adjusting for other family characteristics. *Journal of Adolescents*, 33(1), 187-196.
- Smokowski, P., Buchanan, R. L., & Bacallao, M. L. (2009).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in Latino adolescents: How cultural risk factors and assets influence multiple domains of adolescent mental health.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0, 371-393.

- Stith, S. M., Liu, T., Davies, L. C., Boykin, E. L., Alder, M. C., Harris, J. M., ... & Dees, J. E. M. E. G. (2009). Risk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1), 13-29.
- Thomas, F., & Sumathi, G. N. (2016).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the international students: An empirical approach. *Global Management Review, 10*(3), 61-72.
- Whaley, A. L., & Francis, K. (2006). Behavioral health in multiracial adolescents: The role of Hispanic/Latino ethnicity. *Public Health Reports, 121*(2), 169-174.
- Wolfradt, U., Hempel, S., & Miles, J. N. (2003). Perceived parenting styles, depersonalisation, anxiety and coping behaviour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3), 521-532.

Abstract

Cluster-Based Differences in Parenting Variable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Emotional Risk Level

Youngeun Lim·Dongsun Y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verify what kinds of spontaneous clusters are formed when comb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problem-related variables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whether these groups differ in parenting-related variables (parental support, parental supervision, parental neglect, parental conversation, and activity frequency). Data from 1,842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the 2nd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s 5th year were us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analyzing the emotional problems of multicultural youths using cluster analysis, they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high-risk group for emotional problems" and "low-risk group for emotional problems." Second, to verify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parenting-related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s, an independent sample t-test was conducted. Consequently, the "low-risk group for emotional problems" had significantly higher support, supervision, conversation and activity frequency from parents, and significantly lower parental neglect than the "high-risk group for emotional problems." Third, to verify the relative influence of parenting-related variables on emotional problem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verified that parental supervision, parental conversation and activity frequency, parental neglect, and parental suppor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emotional problems.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emotional problem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are discussed.

[Key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Emotional Problems, Parenting Variables, MAPS 2